



강영두_연합뉴스 기자

일부일처제 혼인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 성성과 혼인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왔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성적으로 한층 개방된 것으로 여겨지는 서구사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혼전 성’, ‘부부의 성’, ‘혼외 성’ 처럼 혼인이 성을 정의했을 정도로 긴밀했다.

기원을 명확히 밝혀내긴 힘들지만 현재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는 일부일처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모든 혼인제도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일부일처제의 허점을 간파했다.

문학이 인간 관심사의 반영이라면, 우리는 문학가들이 오래 전부터 자신의 ‘더듬이’를 곤추 세워 일부일처제의 실패를 감지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호손의 《주홍글씨》, 헨리 제임스의 《황금의 잔》이 그랬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수많은 멜로드라마와 영화는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상상력에 뿌리를 둔 예술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보다는 훨씬 더 현실(사실)에 근거하는 과학 또한 인간이 ‘타고난’ 일부일처형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동물학 박사이자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버래쉬와 의학박사이자 미국 정신병학회 특별 회원인 주디스 이브 립틴이 함께 쓴 《일부일처제의 신화》는 사회생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일부일처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연의 짝짓기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정절과 부정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곤충, 조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

《일부일처제의 신화》
데이비드 P. 버래쉬, 주디스 이브 립틴 지음 |
이한음 옮김 | 해냄 | 372쪽 | 값 12,000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생해 주목을 끌었던 여대생 공기총 피살 사건은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지간인 여대생과의 ‘불륜’을 의심한 장모가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륜不倫. 국어사전에서 ‘남녀관계가 윤리에서 벗어남’이라 풀이되는 이 단어가 사회학, 생물학적 용어인 ‘혼외성교’의 윤색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불륜, 즉 혼외성교가 그토록 치명적인 것인가를 묻는 사람은 드물다. 윤리(도덕)는 우리 사회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거나, 적어도 그와 맞닿은 아주 민감한 영역이어서 함부로 입을 올렸다면 ‘큰 일’ 당하기 십상인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욕망과 도덕 사이에 가로놓인 일부일처제의 '신화'를 벗겨낸다.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본능에 어긋난 것임을 인정하게 했던 최후의 카드는 바로 DNA 지문분석을 통해 밝혀진 조류들의 혼외성과 때문이었다. 일부일처형으로 '알려진' 조류의 새끼를 DNA 지문분석한 결과 10~40퍼센트가 불륜의 씨앗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편견과는 달리 암컷 역시 대단한 성적 모험가라는 것이다. 책은 이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왜 자신의 배우자를 서로 속이는지, 암컷·수컷이 혼외정사에서 각자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도대체 일부일처제란 신화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왜 일부일처제의 속임수에 빠져드는지에 대한 통찰을 여성·남성의 입장에서 논의한다.

F.엔겔스는 일부일처제를 사유재산의 '정확한' 부자 상속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이 책의 두 저자도 "안정적인 대규모 사회 단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남성들의 협력의 대가로서 남성 1명당 여성 1명이라는 평등한 번식 계약이 나타나게 됐다"면서 일부일처제가 남성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암묵적인 남성 대 남성의 번식 계약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사랑이라는 정신적 문제와 성이라는 육체적 문제를 부부라는 틀 안에서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일부일처제의 신화다.

동거와 이혼의 급증, 자유로운 성의식의 확산으로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나 일부일처제의 배타적인 성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일부일처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따라 하기는 쉽겠지만 그렇다고 옳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일부일처제에서의 일탈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태평스럽게 확신하면서 그것을 용인하지는 않는다.

프로이트는 《문명과 불만》에서 문명이 본능의 억압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본능 중 하나가 확실히 '중복 짝짓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만일 사회가 그런 행동을 금지하고, 일부일처제가 성립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일부일처제를 기대한다면 '중복 짝짓기'는 반사회적, 반문명적인 것이다.

일부일처제를 목표로 한 사회는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 상대이고 누가 아닌지 경계를 긋는다. 혼인은 이 영역을 단지 한 사람으로 좁혀 놓는다. 그것이 망쳐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면 안심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집단혼 같은 다른 제도들이 더 잘 작동한다고 밝혀진 적은 없다. 그렇지만 일부일처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일부일처제나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기뻐하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의욕을 갖거나 괴로워해 왔다. 결국 일부일처제는 처칠이 민주주의에 대해 한 말과 같다. "대안을 생각할 때를 제외하면 최악의 체계"인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열정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왜일까? 동물은 뭔가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덜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익숙해지지 않으려면 자극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에 익숙해졌더라도 그것이 꺼지거나 회전 속도를 바꾸거나 하면 갑자기 다시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이치다. 그럼 아예 혼인 생활 내내 결코 익숙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반쪽'을 찾아 나서면 어떨까. 저자들은 그것이 성공한다는 쪽에 돈을 걸지 말라며 이렇게 충고한다.

"각 개인에게 이상적으로 맞는 완벽한 반쪽은 없을지라도, 애정이 담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함께 한 경험을 갈고 닦다 보면, 두 사람은 자신이 사실상 상대의 자물쇠에 유일하게 꼭 들어맞는 열쇠가 될 기회를 갖게 된다."

완벽하게 맞물리는 좋은 일부일처제 혼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물학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듯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인은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다. ❧